

에쓰오일, 공상소방관에 치료비 6000만원

사회복지협의회와 전달식 열어

에쓰오일(알 카타니 CEO·사진)이 공상소방관 치료비 전달식을 열었다.

에쓰오일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영등포소방서에서 '공상소방관 치료비 전달식'을 갖고 부상 소방관들에게 치료비 6000만원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전달한 에쓰오일의 치료비는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활동 중 부상을 입은 전국의 소방관 30명의 치료비로 쓰인다. 에쓰오일은 2009년부터 '소방영웅지킴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300명이 넘는 부상소방관에게 총 6억원을 지원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새마을금고중앙회, MG희망나눔 김장봉사활동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직원 100여명은 지난 3일 강남구 일원동 일원에 코파크 돔구장에서 'MG희망나눔 사랑의 김장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MG희망나눔 사랑의 김장봉사활동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대한적십자사가 함께 진행한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들 및 대한적십자사 강남지구협의회 송삼순 회장 등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직원 100여명은

은 지난 3일 강남구 일원동 일원에 코파크 돔구장에서 'MG희망나눔 사랑의 김장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MG희망나눔 사랑의 김장봉사활동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대한적십자사가 함께 진행한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들 및 대한적십자사 강남지구협의회 송삼순 회장 등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Sh수협은행, '좋은 수가 있다' 올해의 광고PR 상

Sh수협은행이 2019년 올해의 광고PR상에서 기업부문 '올해의 PR'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수협은행은 지난해 '좋은 수가 있다' 기업PR 광고를 진행한데 이어 올해는 '내가 찾던 좋은 수가 있다'로 브랜드 캠페인을 확장했다. 김진균 수협은행 경영전략그룹 수석부행장이 포즈를 취했다.

Sh수협은행이 2019년 올해의 광고PR상에서 기업부문

'올해의 PR'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수협은행은 지난해 '좋은 수가 있다' 기업PR 광고를 진행한데 이어 올해는 '내가 찾던 좋은 수가 있다'로 브랜드 캠페인을 확장했다. 김진균 수협은행 경영전략그룹 수석부행장이 포즈를 취했다.

/Sh수협은행



GS프레시, 대한민국브랜드대상 대통령상 수상

GS프레시(GS fresh)가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온라인/모바일 마트 장비기 소핑몰 GS프레시는 4일 진행된 '제21회 대한민국브랜드대상'에서 영예의 대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 GS프레시 김경환상무(왼쪽)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브랜드 관련 포상에서 GS프레시

가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온라인/모바일 마트 장비기 소핑몰 GS프레시는 4일 진행된 '제21회 대한민국브랜드대상'에서 영예의 대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 GS프레시 김경환상무(왼쪽)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GS프레시



삼광글라스, 한부모가족에 '이유식 용기' 후원

삼광글라스가 지난 3일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 '글라스락 베이비 눈금 이유식 용기'를 2400개 후원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이유식기 후원은 삼광글라스가 9년째 진행해 오고 있는 자사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원그린스텝'의 일환으로, 한부모가족 영유아의 건강과 한부모 육아에 도움이 되고자 연말 기부활동의 하나로 마련됐다.

삼광글라스가 지난 3일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 '글라스락 베이비

눈금 이유식 용기'를 2400개 후원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이유식기 후원은 삼광글라스가 9년째 진행해 오고 있는 자사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원그린스텝'의 일환으로, 한부모가족 영유아의 건강과 한부모 육아에 도움이 되고자 연말 기부활동의 하나로 마련됐다.

/삼광글라스

루시퍼 신드롬



진성오 소장의

심리카페

'루시퍼 신드롬'은 스펀퍼드 심리학과 교수인 필립 짐바르도가 수행한 일종의 심리학 실험에서 근원한 용어로 학교지하에 교도소를 만들어놓고 지원자를 뽑아 죄수와 교도관 역할의 두 집단을 만들고 2주간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관찰 연구한 실험을 기록한 책의 이름이다.

이 책에서 짐바르도는 자신의 단순한 실험이며 역할 놀이에 가까웠던 실험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피험자들은 자신의 역할과 행동을 일치시켜가기 시작하며 실제 실험을 넘어서 성적 학대 수준의 행동까지 이어지게 된다. 결국 2주를 예정한 실험은 참가한 피험자들의 우울증, 정신적 고통 등으로 6일 만에 종료되었다. 독자도 이러한 이야기를 신문이나 혹은 여러 영화로 접해 보았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실험에서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지도, 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적어도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대부분의 인간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루시퍼와 같은 악마가 쉽게 될 수 있는 수동적인 존재라는 것도 알 수 있다.

루시퍼는 악마의 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루시퍼라는 말은 원래 셋별인 금성을 의미한다고 한다.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여성적인 요소의 비하가 일종의 '악마의 왕' 위치까지 올려놓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은 짐바르도의 실험에서 관찰한 인간의 악한 변화를 어떤 면에서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나 욕심으로 혹은 단순히 나보다 힘센 사람이 시켰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악한지의 여부나 판단보다 먼저 행동을 실천하는 무기력한 존재다.

이런 루시퍼 효과는 사실 짐바르도의 실험 이전에 무수한 인간 역사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는 한나 아렌트가 기술했던 '악의 평범성'에도 나온다. 그녀는 우리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악마의 왕인 루시퍼가 특별히 뿔을 달고 얼굴이 빨갛고 꼬리가 달린 것이 아니라 그냥 옆집에서 혹은 회사에서, 길에서 만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냥 우리가 지하철에서 만나는 남자나 여자가 어떤 상황에서

아무런 생각없이 타인의 목숨까지도 뺏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런 행동이 2차대전에 독일인들에 의해서 유대인에게 자행된 것이다.

아우슈비츠에서 생존한 프로모레비는 자신의 수용소의 생존 40년 이후 당시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인지를 깊이 성찰하는 과정을 '가라 앉은 자 구조된 자'라는 책에서 저술한다. 그 책에서 그는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며 피해자인 사람들의 영역 안에서 더욱 가해자의 역할을 하는 모습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가해자들이 일상성과 평범성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한다. 이후 1년 후 자신의 집 창문으로 뛰어내려서 삶을 스스로 마감한다.

고통스러운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생존자가 삶이라는 아우슈비츠에서는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풀려났던 것이다. 필자가 더 아이러니하게 느끼는 것은 그렇게 살아 남은 사람들의 자손들이 팔레스타인에 대해 미사일을 날리면서 광경을 구경하고 쾌감을 느끼며 식사를 한다는 사실이다. 어쩔 이권 그냥 우리가 루시퍼의 자식이란 것을 말해주는게 아닐까?

/당신의마음연구소장

하나금융, 아세안 청소년들에 금융체험의 장 마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념 아세안 10개국 학생 100명 초청

하나금융그룹은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아세안 10개국 중학생과 대학생 100명을 초청해 글로벌 금융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달 25일부터 이틀간 한국에서 개최됐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기념해 아세안 청소년들을 초청, 향후 한국과 아세안의 가교역할을 담당할 미래 세대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금융그룹은 미래의 잠재 손님들이기도 한 아세안지역 청소년들에게 그룹의 글로벌, 특히 아세안 지역에 대한 진출 현황 및 계획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며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의 활발한 행보를 널리 알렸다.

참석한 아세안 청소년들은 국내 최대 규모의 외환거래 현장인 본점 내 딜링룸을 방문해 외환 딜러에게 외환거래, 환율의 변동성에 대한 설명을 듣는 등 글로벌 금융거래의 실제 현장을 생생히 경험했다.

이어 화폐 박물관과 위변조 대응



하나금융그룹은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아세안 10개국 중학생과 대학생 100명을 초청해 글로벌 금융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참석한 아세안 청소년들이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딜링룸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센터에서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화폐 실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간단한 위폐 감별 방법을 배우는 등 다채로운 체험을 통해 금융지식을 함양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아세안 청소년들과의 대화에서 "장차 한국과 아세안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게 될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 매우 반갑고 기쁘다"며 "하나금융그룹이 글로벌 금융비즈니스 확장을 활발히 추진하

고 있는 만큼 전문지식을 갖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꼭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격려했다.

한편, 하나금융그룹은 저개발 국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하나 해외클래스 설치, 해외 우수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글로벌 미래 인재 양성 및 네트워크 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홍민경 기자 hong93@metroseoul.co.kr

인사

-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상무승진 △엔터프라이즈 커머셜 사업본부 이준승 △파트너 및 SMC 사업본부 이원준
- ◆씨네21 △기획취재1팀장 김성훈 △기획취재2팀장 이주현
- ◆한국화학연구원 △부원장 최원준 △화학소재연구본부장 윤성철 △미래융합화학연

구본부장 노승만 △화학플랫폼연구본부장 장현주

- ◆목포대학교 △학생처장 최동오 △기획처장 이형재 △교무부처장 류동영 △입학부분부장 최정민 △박물관장인문대학 한정훈 △국제교류교육원장 최재민 △신문방송사주간 안미현 △연구실안전관리센터장 최종명

부음

- ▲강길만씨 별세, 강헌(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씨 부친상=3일, 부산 BHS 한서병원 장례식장, 발인 6일 051-751-1860
- ▲박순애 씨 별세, 정신적(전 경성대 교수) 씨 부인상, 양환(동아일보 문화부 차장) 씨 모친상, 이영희(MBC 라디오 작가) 씨 시모상=4일, 경남 진주시 제일병원 장례식장, 발인 6일 오전 9시, 055-750-7100